

<https://doi.org/10.22643/JRMP.2023.9.2.55>

## When All Think Alike, No One Thinks Very Much

Jung Young Kim\*

Division of Applied RI,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Seoul, Republic of Korea.

올해 과학계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도 R&D 예산이 14% 정도 삭감된 사건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 상 최초의 사건이며, 과학기술로 선진국 대열에 빠르게 진입한 우리의 경제구조나 규모 상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고, 국가 미래경쟁을 고려할 때 너무나 걱정되는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당장에 연구에 투여되는 직접비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몇년이 흐른 뒤 국가의 과학기술·경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귀결된다. 그 때 우리가 체감할 쯤에는 그것을 원복시킬 수도 없다. 방사성의약품을 주로 연구하는 우리 학회도 내년부터 그 R&D 예산 삭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듯 많은 과학계에 걱정들은 단순히 과학자 개인의 연구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과학그룹 안에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석박사 연수학생이나 포닥이다. 결국 정부의 연구비 삭감은 직접적으로 그 연구비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수학생이나 포닥의 월급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도달한다.

이렇듯 우리나라 과학 역사상 가장 차가운 바람이 2023년 겨울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서일까, 2023년 우리 학회의 학술논문 투고량도 어느점에 도달했다. 2015년 창간이래 가장 적은 수의 학술논문이 투고되었고, 우리 편집위원회는 그 어느 해보다 가장 길고 어려운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마치 처음 탄생한 방사성동위원소처럼 많은 광자와 같은 논문을 내뿜다가 그 물리적 반감기를 지났는지, 이제 그 양이 반으로 줄었다. 우리 학회의 반감기가 7년일까. 누구나 다 편안한 마음으로 학회에 참석하고 싶은 생각은 이해가지만, 오늘날 위기는 우리 모두가 물리적 반감기를 잊어버리고 'exciting state'로 한 번 더 가야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번 호 학술지는 새로운 형광물질,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율 증대, 뇌종양진단용 방사성의약품, 방사선에 의한 DNA 손상 가상실험, 새로운 Cu-64 방사성 의약품 등이 주요하게 실려져 보고되었다. 아인슈타인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리 학술지는 방사성의약품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다양한 학술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진보적인 학문이며, 9권 2호 역시 그러한 다양한 융·복합기술들과 결합되어 소개하고 있다. 우리 학회의 연구가 타학문에 비해 과학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을지라도,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메카니즘을 발견하고 치유하는 중요한 키맨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 가치는 9권 2호의 리뷰 논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 나오는 원시적인 힘을 제어하고 안전하게 인체의 질환 극복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진보된 도구이며, 우리 인체에서 벌어지는 미세세계를 자연스럽게 동영상으로 보여주어 타기술의 발전에 도모하는 협력의 기능도 풍부하다. 이러한 학문의 우수한 결과물도 그렇지만, 방사성의약품 개발하는 과정도 많은 전공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나누어서 구상되고 제작되는 특성이 가장 아름답다. 물론 그것을 보여주는 생물의 메카니즘도 경이롭긴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R&D 삭감이 방사성의약품 개발에서 연구그룹의 양적 저하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학회가 쌓아온 질적 개별기술의 영향력은 훼손되지 않고 더욱 성숙해지리라 확신한다. 저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기존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시련을 잘 극복하리라, 이 번 호를 편집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학회 연구자들이 각자 가진 뛰어난 기술을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인 기술로 계속 거듭 성장하기를 믿는다. 그리고 다음 호에는 그런 기술들의 결과물이 연어의 회귀본능과 같이 우리 학술지에 다시 수록 되고, 또 많은 연구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로 거듭나기를 희망 한다. 모두들 지지치 마시라.

Received: December 30, 2023

Corresponding Author: Jung Young Kim, Ph.D. Division of Applied RI,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75 Nowon-ro, Nowon-gu, Seoul, 01812, Korea.  
E-mail: jykim@kirams.re.kr

Copyright©2023 The Korean Society of Radiopharmaceuticals and Molecular Probes